

학습 활동 1: 깊이 생각하는 것과 개인적인 계시

여러분은 살면서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힐라맨서 10장 앞부분에서는 니파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권능을 받는 경험에 대해 배운다. 니파이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시를 받고 인식할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힐라맨서 10장 1~3절을 읽으면서, 니파이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계기를 찾아본다.

2절과 3절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경전에서 이 단어에 표시를 해 두면 좋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다. 주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면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된다.

-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 왜 깊이 생각하면 계시를 더 잘 받을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가만히 있어 영을 듣고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는 방해 요소들이 세계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명상하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도 필멸의 성역을 행하실 때 그렇게 할 시간을 찾으셨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청년 성인 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4년 5월 4일], 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

- 영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기 어렵게 하는 방해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만한 “주님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깊은 생각을 통해 계시를 받은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또는 깊은 생각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목표를 생각해 본다. 학습 일지에 여러분의 목표를 기록한다.